

1 본회소식

회장인사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올해로 설립 75주년을 맞으며, 배출한 동문도 연인원 6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미술대학은 한국 미술교육의 효시이자, 해방 이후 세계와 우리나라의 지도적 미술가들을 배출해 왔고,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규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업적과 성취가 앞서 나아가신 선배님들과 동문 여러분의 연구와 창작의 열정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대 동창회는 국내외로 흩어진 6500여 동문들을 찾아내어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동문들의 작품 아카이브 제작 사업을 기획 지원하고 있으며, 구축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동문전을 기획하고, 지난해는 동문들의 미술나눔 옥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 예비동문인 재학생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탈북민 자녀가 다니는 여명학교를 지원하는 사회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희는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S-Art Platform)을 창설했습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젊고 감수성이 예민하던 청년기에 생각의 잔뼈를 굵게 해준 모교는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며, 우리 모두가 그 터에서 성장한 동문이라는 사실 또한 바꿀 수 없는 인연입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저마다 고유한 교육이념이 있고, 면면히 내려오는 학풍이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동문들의 작품에는 서울대 미대의 아카데미즘 전통이 배어 있고, 자존심과 긍지가 보입니다.

The Show Must Go On!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예술계 전체를 얼어붙게 하고 있지만,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현재 우리 미대 동창회는 그동안 구축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여, 언택트 전시인 '아트온더라인(ART ON THE LINE)'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으로 개발한 전시 사이트에 400여명의 동문들이 12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근이 쉬워 동문들과 미술애호가들의 관람 또한 뜨겁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파악된 3500여 동문에게 매월 뉴스레터(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가 전송되고 있고, 페이스북, 밴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미디어, 그리고 동창회 단체카톡방, 이메일 등으로 동문들의 전시 및 출판 소식과 애경사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www.snuarta.or.kr)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이 웹사이트에 6500 동문의 버추얼 아카이브가 되어서 대외, 대내적으로 열린 소통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또한 최초로 동문들이 대거 참여한 <서울대미술인> 발간은 코비드19로 인한 언택트 격리의 시대에, 지상에서 컨택트 통합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1000명에 달하는 동문이 참여하는 대역사를 가능케 한 미대 동창회 임원과 헌신적인 후배 일꾼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회장 권영길

ART ON THE LINE

2020.10.20 - 11.2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온라인 동문전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Alumni Association

온라인동문전 ART ON THE LINE 순항중

본회(회장 권영길)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모교 미대 온라인 동문전 'ART ON THE LINE'을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에서 개최되는 이번 동문전에는 40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작가별로 3점씩, 1200여점의 작품 및 약력이 소개되고 있다. 오픈 전에 이미 조회 수가 폭주했고 오픈 날에는 800명이 접속했으며 현재도 서울대미대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활동에 관심 있는 동문들과 일반 애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온라인 전시가 순항 중에 있다.

총동창회캘린더 수록작품 선정



본회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희범)로 부터 요청 받은 2021년도 총동창회캘린더에 수록될 작품 선정을 위해 본회 권영길 회장을 비롯해 모교학장, 서울대미술관장, 갤러리스트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10월초 본회 선릉오피스에서 열린 선정위원회에서는 양혜규, 이호욱, 지원진, 최영빈, 이만나, 윤송, 김성국, 유종구, 오귀원, 김수정, 정직성, 신미경, 조인호(월별과 표지 작가 순) 동문의 작품이 선정됐다. 수록되는 작품은 표지를 포함해 총 13점이며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미지 사용료가 지급 된다. 이번에 제작되는 캘린더는 탁상용으로 서울대동문들에게 11월 말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총동창회는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58세 미만 동문들에게는 탁상용캘린더를, 58세 이상동문들에게는 수첩을 증정하고 있다.

모교소식

수원시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 발전 도모



모교(학장 문주)가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 교육을 진행하며 수원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힘을 모았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자치대학은 10월 중 '서울대 미대와 함께하는 창의예술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먼저 청소년 대상 실습 교육인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인체해부학 극장'은 지난 10월 22일과 29일 화상강의로 진행됐다. 제이에이치조형 대표 최정희(99조소) 동문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파리와 인간을 비교하며 뼈와 근육, 신경 등 우리 몸의 역사와 구조를 진화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그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9일, 26일, 11월 2일 3주간에 걸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내 몸 사용설명서-관절, 근육'은 총 3단계에 걸쳐 뼈의 모양과 관절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21일에는 '이제 창조하라'라는 제목의 일일 특강이 마련돼 모교 교수 권대훈(90조소) 동문이 누구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모교는 수원시정연구원과 지난 6월30일 공동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협약에는 ▲일반인 및 학생 대상 문화예술 평생교육 추진 및 플랫폼 개발 ▲예술기반 창업 및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 ▲수원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전시행사 추진 ▲문화예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수원시에 적합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플랫폼과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후로도 공동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화교육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디자인컨퍼런스 IDCC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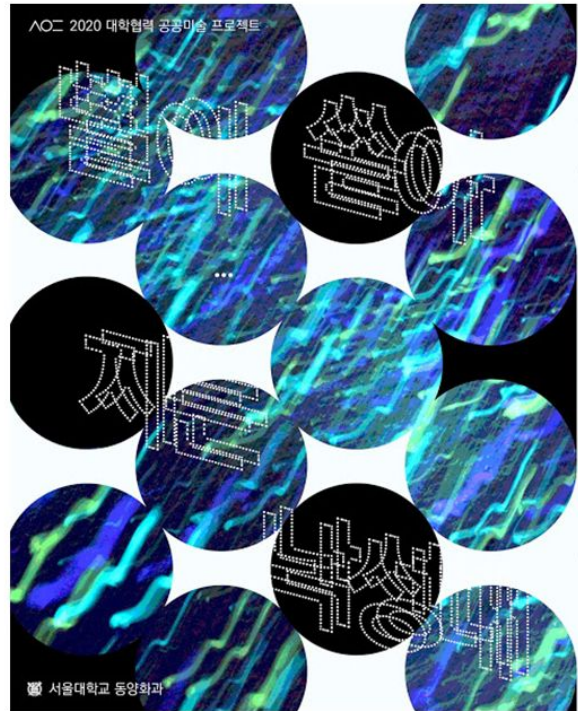


모교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주최로 열여덟번째 국제디자인컨퍼런스 IDCC(International Design Culture Conference)가 'Good work'이라는 주제로 11월 13일과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Good Work'는 성장에 매혹되었던 지난 세기에 '과연 지난 세기에 '과연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며 경고의 질문을 했던 프리츠 슈마허의 동명의 강연록이기도 하다. 이 질문은 반세기를 지나 지구적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들려온다. 이번 IDCC에서는 비즈니스와 교육의 현장에서 디자이너와 기업가로서, 시민, 작가, 연구자로서 그 질문에 대한 창조적이고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연사들이 강연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웹사이트(<https://idcc.snu.ac.kr>)와 인스타그램(@idcc.2020)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생회, 가상전시 Pathfinder 개최



모교 학생회(회장 하규원)가 오는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게임엔진을 활용한 가상전시 Pathfinder를 개최한다. 8명의 기획팀과 26명의 모교 학부생들이 참여하며 스타트업 Ersatz의 기술구현으로 미술대학 가상공간을 구축해 전시를 진행한다. 학생들의 작품이 가상화되어 공간에 전시되며 관객은 가상공간을 돌아다니며 관람할 수 있다. 언택트 시대의 전시 포맷을 고민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Pathfinder는 지난 11월 16일 오후 4시 30분 모교 건물 앞에서 약식 오픈닝을 했다.



별이 쏟아지는 낙성대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248길 인현시장
2020.09.24 ~ 09.28

**Starry
starry
Nakseong
-dae**

35, Nambusunhwan-ro
248-gil, Gwanak-gu,
Seoul
Sep.24th ~ Sep.28th

김지민 박소은
김지수 양수연
김희원 유재식

I-SEOUL-U

별이 쏟아지는 낙성대

모교 동양학과 대학원생 6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별이 쏟아지는 낙성대'가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낙성대 인현시장에서 오프라인 전시를 마치고 10월 22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웹사이트(<https://seoulau.com>)에서 온라인 전시를 진행 중이다. '별이 쏟아지는 낙성대'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미술관으로 만드는 '2020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낙성대'라는 지역명의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낙성(落星)=떨어지는 별빛과 소원의 이미지를 인현 전통시장 공간으로 확대한 프로젝트이다. 모교 후문 쪽에 위치한 '낙성대'는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으로,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에 얽힌 설화가 전해진다. 모교 팀은 '별이 떨어진 곳', '위기를 이겨낸 큰 인물이 탄생한 곳'이라는 의미의 설화를 재해석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참여작가들이 별과 밤하늘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제작한 '별이 쏟아지는 파라솔' ▲인현시장 상인들의 소원을 이미지화하여 비단에 담은 '인현시장의 소원을 담은 은하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한편 서울시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서울시 공공미술 철학과 교육현장을 연결하여 지역사회 주체인 지역/대학/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 작품 활동으로, 올해 6개 대학의 6개 팀이 선정되어 참여했다.

담당교수 : 신하순(83동양)

참여작가 : 양수연(07동양), 김희원(14동양), 김지수(06동양), 김지민(14동양), 박소은(14동양), 유재식(13동양)

서울대학교미술관

[Re] Collect 여성작가 소장품전



▶참여작가 : 김성희 김정자 나희균
박근자 심숙자 유부강
이신자 장상의 정정희
홍정희 등 52명

▶전시기간 : 2020. 10. 28 ~ 11. 29

▶전시장소 : 전시실1-4(02-880-9504)

▶관람시간 : 오전10시~오후6시
(월요일 휴관)

서울대소식

개학125주년·개교74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오세정 서울대 총장, 수상자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부인 민계완 씨, 이희범 총동창회장,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대표.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성기학(66무역) 영원무역 회장과 김기남(77전자공학)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정했다.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 320호에서 열린 개학 125주년·통합 개교 74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했다. 성기학 동문은 의류 제조수입 기업인 영원무역을 설립하고 아웃도어스포츠 제품에 주력해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지에 현지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서울대학교에 곧 준공될 우석경제관 건립기금 130억원을 비롯해 장학금과 학술연구기금으로 거액을 쾌척했다. 국내외에 자사 의류와 물품을 기부하며 사회봉사를 펼쳤다. 김기남 동문은 UCLA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198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30년 이상 반도체 사업부에서 한우물을 판다. 많은 메모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반도체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과 설계 분야에서 유수의 기술을 확보했다. 서울대학교와는 삼성전자 서울대 공동연구소 설립과 인공지능반도체공학 융합전공 지원 등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했다. 성기학 동문은 “50년 전에 졸업했지만 학생들이 좀더 폭넓은 교육을 받고 교류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노력해왔다”며

“서울대의 발전과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으니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달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서울대학교는 1991년부터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들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서울대 THE 세계대학평가 60위

서울대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THE(The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평가에서 작년보다 4단계 오른 60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2일 THE가 발표한 2021 세계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는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총점 69.7점을 받았다. 항목별 점수는 교육여건 72.4점, 연구실적 73.8점, 논문 피인용도 68.8점, 산학협력수익 97.8점, 국제화 37.4점이다. 교육여건 점수는 세계 30위, 산학협력수익의 점수는 세계 39위급으로 국제화 점수는 2016년 30.9점에서 한 번도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국내 대학 2위는 세계 96위의 카이스트, 3위는 세계 101위의 성균관대였다. 전체 순위를 보면 여전히 옥스퍼드대가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캘리포니아공과대, MIT가 뒤를 이었고 100위권 안에 중화권 대학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총 30억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 16일 총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에 납부한 학부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 6차례 협의 끝에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방법을 결정했다. 총 20억원 규모의 긴급학업장려금은 지난 1학기에 등록한 학부 재학생들이 수혜 대상이다. 음대와 미대 학생은 지급비율을 달리 적용해 최대 10%p 더 많은 액수가 예상된다. 긴급구호장학금은 총 10억원 규모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중 코로나19 사태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이다. 학부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에게 일괄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원생에게는 추후 신청을 받아 선별 지급한다.

서울대총동창회소식

11월 수요특강

SNUA사수회 : 네번째 수요일 개최

- 일시 : 11월 25일(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SNU장학빌딩2층 베리타스홀 (마포구 도화동, 5호선 공덕역 8번출구)
- 강사 : 박승준(74인문대) , ‘한국과 중국 100년’ 저자,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
- 참가비 : 무료(김밥 등 간단한 식사 및 강사 저서 제공)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경우, 선착순 40명으로 제한
- * 참석 못한 동문들을 위해 추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예정 (www.youtube.com에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검색)

※ 자세한 행사 안내 및 신청방법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총동창회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참가신청 가능. 문의 : 02-702-2233, 02-879-820

12월 조찬포럼

- 일시 : 12월 10일(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 웨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호텔 그랜드 볼룸 (고속터미널 뒤)
- 강연자 : 최정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강의주제 : 내년도 경제 전망
- 참가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증정)
- 참가신청방법 : [이름, 단체(과정명), 연락처기재]후 참가비 입금
- 전화 02-702-2233, 02-879-8204(담당자)
-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 팩스 02-703-0755
- 이메일 member@snu.or.kr
- * 참 가 비 : 5만원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람

재능기부

온라인동문전 웹사이트 제작

김종삼(96서양)



본회가 개최 중인 온라인동문전 '아트온더라인' 웹사이트를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한 김종삼 동문. "동창회 일은, 저도 일원이니까 제 일에도 가깝다 생각해요. 다른 기관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여기서는 나도 여기 일원이니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라며 동창회를 위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온라인전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전에 공부했던 홈페이지 언어가 지금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라 제작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다"면서도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화려하게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문은 모교 입학 이전 경희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다. 원래부터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미술실기 경력이 없어 미대 대신 비슷한 계통인 건축과로 진학했다. 건축과에서 설계, 조감도를 공부하던 중 286컴퓨터가 출시되며 설계가 자동화될 것이란 예측에 진로를 새롭게 정하게 됐다. 이에 3학년 때 건축과를 중퇴한 뒤 한성대 서양학과, 홍대 판화과를 거쳐 8수 끝에 모교 서양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이후 김동문은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병행하고 있다. 김동문은 하루평균 400여명이 방문하는 '아트뉴스'의 창립자이자 편집자 겸 기자이다. '그림제작소'와 작품·건축출장촬영전문 스튜디오 '시간과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본인의 작품소개를 위해 시작한 '아트뉴스'를 하다 보니 독학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됐고, 언론사등록을 하고, 기자회견에도 가입하게 됐다고 한다.

축하기 · 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신청/ 02-872-8065).

입금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감사·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납부자(2020.10.1-31)-가나다순

■ 평생회비 ●장수홍(69응미)

■ 연회비

부회장(₩300,000) ●임영선(79조소)

이사(₩100,000) ●권동현(90조소)

회원(₩ 30,000) ●이삼철(58회화) ●최석화(58조소)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매달 25일 이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전화 02-872-8065 메일 snuarta@naver.com

동문사업체 소개

본회는 홈페이지(제작중)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의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SNS 가입안내

▶네이버 밴드(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https://band.us/band/76254576>

▶인스타그램(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www.instagram.com/snuartassociation

▶페이스북(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www.facebook.com/groups/500249366673119/

▶네이버 카페(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cafe.naver.com/snuartassociation

LIFEHACKERS

턱관절 냉온 찜질기

어떤 얼굴형에도 맞춤 가능한 특수제작 스트랩!
턱관절 통증 완화 및 붓기 제거!
간단하고 편리한 사용법!
20g의 가벼운 무게!

동문할인

~~24000원~~ -> 18000원

문의 및 주문: 010-6252-9732



https://smartstore.naver.com/lifehackers_kr

디자이너 명예의전당 헌액

김교만(50음미)



김교만(1928-1998) 동문이 지난 9월 24일 디자인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디자인계를 이끈 공로가 인정돼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제7대 헌액자로 선정됐다. 김동문은 간결하고 현대적인 표현기법과 민속적인 소재의 결합을 통해 당대 그래픽디자인 사조에 큰 영향을 준 그래픽디자이너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심벌마크, 로고를 비롯해 '88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 의료보험 심벌마크, 김포공항 국제선 제12청사의 국내선 사인보드, 픽토그램, '92제노바EXPO 한국관 심벌마크, 경찰청 순경계급장, '94한국방문의해 공식 엠블럼, 로고 등을 디자인 했다. 김동문은 1965-94년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6년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디자이너 100인' 중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은 국내 디자인산업 발전에 공헌한 디자이너를 헌액함으로써 우리 디자인의 역사 기록과 디자이너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만들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계 협·단체와 간담회 및 디자인계 제안을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명을 헌액했다.

바이블도자예술관 특별전

서동희(66음미)



서동희(건국대 명예교수) 동문이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더샵스타시티 전시관에서 '바이블도자예술관 2020 특별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골짜기의 백합화(아가서 2장 1절)'이다. 마태복음을 주제로 제작한 '산상변화' 시리즈, 요한계시록을 테마로 한 '생명의 강' 연작, '생명나무',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의기상승', '광채' 등이 선보인다. 서동문은 성경말씀을 조각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미국 플브라이트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캔자스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빵 썰는 기법을 응용한 도자조형기법을 구축했다. 건국대 교수가 된 뒤 도예과의 공간확보에 힘썼다. 작품제작 및 판매 등을 통해 실습용 가마를 구입하는 열정을 드러냈다. 서동문은 "그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독교 작품을 만든다는 기쁨과 설렘 속에서 살았다"며 "쉽사리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시가로 1000억원에 이르는 작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일명 '성경도예관'을 세울 꿈도 꾸고 있다. 전시관람은 전화예약제(010-2271-2257)로 운영한다.

한국현대조각초대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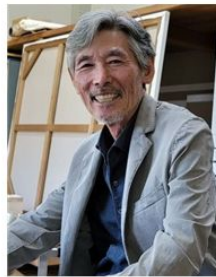
이창림(69조소)



이창림(69조소) 동문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2020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이 강원도 춘천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현대조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은 지난 10월 10일 춘천MBC사옥 내 호반광장에서 개막해 18일까지 39일간 개최되어 조각계를 대표하는 원로와 교수 등이 선정한 작품 69점을 선보였다. 이동문은 "이번 전시는 춘천의 아름다운 속에서 작품의 조형미와 예술미를 감상하는 기회며 명절과 함께 마음을 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체험의 장"이라고 말했다. 1987년부터 춘천MBC가 매년 가을 개최하는 올해로 34회째를 맞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은 춘천MBC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관람도 가능하다.

이인성미술상 선정

강요배(72회화)



서양화가 강요배 동문이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순명 심사위원장은 "일관되게 회화작업의 길을 걸어온 강작가는 최근 연륜이 더해지면서 밀도 있는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다"며 "시대와 역사에 충실하고 다양한 화풍의 변모를 추구하는 예술세계를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강동문은 "예상치 못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내년 진행될 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주에서 태어난 강동문은 현재 제주에 거주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과 학교재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국립현대미술관, 미국 소노마카운티뮤지엄,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 및 갤러리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한편 이인성미술상은 대구출신 서양화가 이인성(1912-1950)을 기리기 위해 대구시가 제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 개인전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시상식은 제20회 수상자 '조덕현(76회화)' 초대전과 이인성미술상 20주년기념 특별전과 함께 오는 11월 4일 대구미술관에서 열린다.

춘천조각심포지엄 작가상 수상

전향섭(79조소)



전향섭 동문이 춘천조각심포지엄 작가상을 수상했다. '치유와 회복의 기념비'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5일부터 춘천 옛 캠프에이 내 꿈자람 물정원에서 열린 '2020춘천조각심포지엄'은 2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5일 마무리됐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참여작가 9인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올해의 작가상에 전동문이 선정돼 상패가 전달됐다. 모교 조소과와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한 전동문은 2012년 전향섭 평면조각전, 제8회 '나무 속의 방', 제9회 '나무경2018' 등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수상 경력으로는 '2000 우정김종영조각상', '2009 경기예술대상', '2014 한국현대조각초대전작품상' 등이 있다. 작품상 수상자인 전동문의 작품은 춘천시 낙원동 낙원문화공원에 설치됐다.

순종척서로 만든 디지털글꼴

김민(80음미)



국민대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 교수 김민 동문이 순종 척서로 만든 디지털 글꼴 재민체를 개발했다. 재민체는 1908년 순종황제가 근대식 국립병원인 대한의원 개원일에 내린 '대한의원 개원칙서'(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소장)에 쓰인 글씨체를 토대로 만들었다. 개발은 국민대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 김민 교수팀과 국립암센터 초대원장 박재갑 서울대의대 명예교수이다. 박교수는 칙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가 왜 통용이 안 될까 안타까웠다"고 했다. 서예를 배우면서 칙서의 번역본을 궁서체로 옮기는 연습을 했는데 지난해 2월 이를 본 김동문이 서체 제작을 제안했다. 시인 윤동주 천상병, 신영복 교수의 육필을 디지털 폰트로 복원한 서체전문가인 김동문은 박윤정 겸임교수, 이규선 연구원과 함께 칙서의 33자 한글 자소를 기반으로 총 2350자를 완성했다. 폰트 이름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와 아울러 두 교수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 574돌 한글날을 맞아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에서 특별전 '함께 쓰고, 함께 그린다-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가 열린다. '대한의원개원칙서'와 지석영이 쓴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 등 박교수가 재민체로 옮겨 쓴 서예작품들이 전시된다.

경기도민상 수상

심상용(81회화)



심상용(서울대 미술관장) 동문이 도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17일 경기도민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내 전시된 작품들을 보며 작품의 질적 수준이나 흥물처럼 방치된 전시 형태, 구조적 적폐 등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심동문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으로 참여, 수준 높은 작품이 도민에게 좋은 문화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심의를 해왔다. 건축물 미술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된 것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작품인 만큼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에서다. 1년간 12번의 심의를 진행했으며, 8~9명의 위원과 1회당 평균 40~60건의 작품을 심의했다. 이로 인해 특정 작가의 출품 쏠림 현상도 완화됐다. 심동문은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가가 되려 모교에 진학했던 심동문은 현대 미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졸업후 파리 유학을 감행해 파리 8대학에서 석사, 1대학(현대미술사)과 8대학(조형예술)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동덕여대 교수를 거쳐 지난해부터 모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강원키즈트리엔날레 개막

한젤마(89서양)



한젤마 동문이 예술감독을 맡은 국내 최초 어린이 시각예술축제인 ‘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0’이 지난 10월 22일 개막했다. 한동문은 “전쟁에 쓰이는 총알을 만들던 탄약정비공장에서 예술가들이 미래 꿈나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아트 탄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축제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예술놀이터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일회성 축제에서 벗어나 어린이는 물론 연인, 친구, 가족들이 즐겁게 찾을 예술명소를 지역의 자산으로 남긴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옛 군부대 탄약정비공장과 와동분교, 흥천미술관 일대에서 무료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그린 커넥션’이다. 자연과 환경, 동심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경계를 넘는 평화를 의미하는 ‘연결(Connection)’의 합성어다. 총 11개국 110명의 작가(어린이가 작가 포함)가 참여하고, 350여 작품이 전시되며 온오프라인으로 11월 8일까지 열렸다.

초대륙적 기획자 대담

양혜규(90조소)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양혜규 동문의 개인전 기획자 4인의 온라인 대담 ‘불확실성의 원뿔 속 초대륙적 대담’이 열렸다. 이번 대담은 지난 10월 8일 MCAD 온라인플랫폼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국립현대미술관 페이스북에서도 공유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코로나19로 전시가 연기되면서 4개국 전시가 동시다발로 열리게 된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세계적인 작가 양혜규의 개인전을 준비해 온 4개국 미술관 기획자들이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연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담에서는 팬데믹이 각 지역의 예술 및 문화 기관에 미친 영향과 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지희 학예연구사가, 캐나다 온타리오 미술관에서는 아델리나 블라스 큐레이터, 영국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에서는 앤 바로우 큐레이터가 패널로 참여했다. 진행은 조셀리나 크루즈 MCAD 큐레이터가 맡았다.

세계적인 교육앱 개발

이수인(95조소)



엔씨소프트 출신 이수인 동문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 이진호 최고기술책임자와 2012년 미국 버클리에서 공동 창업한 기업 에누마는 3~9세 아동이 부모나 교사의 도움 없이도 기본 문해(文解)와 수학, 영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 부부는 게임업체 근무경험을 살려 아이가 놀이하듯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디자인에 주력했다. 그렇게 탄생한 앱이 2013년 출시한 ‘토도수학’이다. 토도수학은 등장하자마자 세계 20개국에서 애플 앱스토어 교육 부문 1위에 올랐다. 현재 미국·호주 등 여러 국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수업교재로 토도수학을 활용한다. 에누마는 토도수학과 종합교육솔루션 ‘킷킷스쿨’에 이어 올해 ‘토도영어’와 ‘토도리글방(한국어)’ 등의 콘텐츠를 잇달아 출시했다. 국내외 여러 투자기관이 에누마에 약 220억원(누적)을 투자했다. 지난해 킷킷스쿨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1500만달러(약177억원)를 후원한 아동교육경진대회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대상(공동 우승)을 받았다.

코로나시대, 브랜드가 생존 가르다

최소현(95산대)



수많은 브랜드 경험을 설계해 온 최소현(퍼셉션 대표) 동문은 지난 10월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직면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 회사 창립 이후 만 18년 동안 브랜드 경험 설계 퍼셉션을 이끌어 온 최동문은 눈에 보이는 겉데기보다 브랜드철학을 담은 가치를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자신이 할리스라는 브랜드를 다시 만들면서 구상했던 이미지와 SNS상에 올라오는 할리스의 모습을 비교하곤 한다. 둘 사이에 차이가 없이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최동문은 “할리스는 로컬 브랜드로서 고객을 중심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고객들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낄 것”이라며 “앞으로 디자인이 갖는 힘이 더 커지고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해온 대로 퍼셉션을 잘 키워내 ‘문제해결을 잘 해낸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와 이론가 타이틀매치

함양아(87서양)



함양아 동문이 서동진 평론가와 ‘오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결을 펼친다. 경쟁과 대화,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대표 연례전 ‘타이틀 매치’의 일곱 번째 전시 함양아 vs 서동진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전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2021년 2월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와 이론가가 맞붙었다. 함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대학원 미술이론과를 졸업한 후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미디어 아트를 공부했다. 이후 미국, 중국, 네덜란드, 터키 등의 여러 지역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토대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화된 자연에 대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위태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흔들리는 모두에게 각자 균형을 잡아가는 경로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숙고하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서울미술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회차당 80명씩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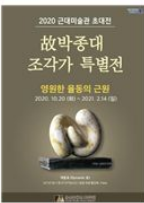
	김충원 미술수업 세트(전3권) 김충원(79음미) 저 / 전선아트북 발행 〈김충원 미술수업 세트〉는 《김충원 색연필 수업》과 《김충원 크레파스 수업》, 《김충원 수채화 수업》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전 국민의 미술 멘토가 되었던 책 〈김충원 미술교실〉 시리즈를 토대로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대상의 폭을 넓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그리기를 배우는 시리즈로 탄생하였다. 일반인은 물론 부모와 아이, 교사 모두가 즐기며 그릴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전문적인 이론까지 세세하게 소개하여 온 가족이 즐기기에 유용하다. 따라 그리고 싶은 다양한 보기 그림을 가득 실어 그림 그리기를 즐기고 싶은 이들 모두에게 적극 추천한다.
	인생에 예술이 필요할 때 심상웅(81회화) 저 / 시공아트 발행 그림에서 찾는 인생과 죽음, 예술, 사랑, 치유 예술가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은 전작 『예술, 상처를 말한다』에 이어 인생, 죽음, 예술, 사랑, 치유 다섯 가	지 주제로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어 우리에게 위로를 전한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속 사이프러스 나무를 통해 묵묵히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를 인생에 비유하고, 클림트의 관능적인 그림에서 오히려 평생 동안 간직하고픈 사랑과 우정을 발견한다. 고야, 르누아르, 조지아 오키프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나설 시간이다.
	불안은 감각을 잠식한다 안상혁(81음미) 저 / 사람의무늬 발행 “상상적 관념들은 현대 엔터테인먼트를 최고의 영역으로 바꾸었다. 과거의 철학에서 상상적 관념들이 이성적 변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정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상상적 관념과 이성적 변용 사이의 갈등과 투쟁, 그것의 중심에 불안	이 있다.” 끊임없이 현재를 새롭게 갱신하도록 요구받는 시대, 그곳에서 감각의 논리는 주목된다. 현대 미학이 감각의 논리에 천착하게 된 것은 언어로 의식화되지 않는 곳에서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 속에서 감각은 인간과 세계를 가로막는 장벽들인 철학적 반성과 합리적 언어의 개념성을 허물어뜨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직접성을 환기시키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한다.
	그림을 보는 기술: 영화의 구조를 읽는 법 이연식(90서양) 옮김 / 까치 발행 그림이 보이는 해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는 그림 감상 안내서. 루벤스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생동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왜 유독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까?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왜	대표적인 명화로 꼽힐까? 그 이유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일본 야마존 장기 베스트셀러인 이 책에서 저자는 구도, 선, 경로, 색감, 균형 등을 토대로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는 기술을 설명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서부터 빈센트 반 고흐, 에드워드 호퍼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화들을 예시로 살펴 보면서 그림을 읽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다.

전시(단체전)

	이원전 40주년기념전 동양화와 동문들의 단체전 ▶출품작가: 故김경선 김화현 민재영 박민희 송윤주 심현희 유한이 이윤정 이윤진 이진희 전수연 정희우 조은령 조해리 최혜인 ▶기간: 2020. 10. 28 ~ 11. 03 ▶장소: 갤러리 도스 본관(02-737-4678)
	한국화회 동양화와 동문들의 단체전 ▶기간: 2020. 11. 08 ~ 11. 14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

	공간과 사물 도예과 동문들의 단체전 ▶기간: 2020. 10. 09 ~ 10. 22 ▶장소: 두모아트센터2층 불탑쇼룸 (02-516-3022)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7시 (토요일 6시까지/일요일 휴관)
---	--

전시(개인전)

 예술가의 《꿈》 김종영(조소과교수/작고) ▶기간: 2020.10.16~21.4.16 ▶장소: 김종영미술관 본관 (02-3217-6484)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The Path 김창열(48회화) ▶기간: 2020.10.23~11.29 ▶장소: 갤러리현대 (02-2287-3500)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작고작가 정치환 정치환(60회화/작고) ▶기간: 2020.10.20~10.25 ▶장소: 수성아트피아 (053-668-1800)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
 영원한 울동의 근원 박중대(62조소/작고) ▶기간: 20.10.20~21.02.14 ▶장소: 군산근대미술관 (063-454-5953) ▶관람시간: 오전9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나희균, 고요의 빛 나희균(50회화) ▶기간: 2020.11.14~12.31 ▶장소: 환기미술관 본관 (02-391-7701)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LANDSCAPE 서도식(74응미) ▶기간: 2020.11.11~11.30 ▶장소: 디자인갤러리 모이소 (02-2262-7195)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성명(가나다순)	전시명(개인전)	전시기간	전시장소
홍선애(62회화)	Sunny Kim - Starry Night	10. 06 ~ 10. 31	TAG Gallery(LA)
강요배(75회화)	풍경의 깊이	10. 27 ~ 11. 30	학교재 가상전시공간 OROOM(오름)
권순철(64회화)	권순철 展	11. 20 ~ 12. 20	가나아트센터
김상경(87서양)	Landscape in Jeju 2020	11. 25 ~ 12. 01	갤러리 고도(02-720-2223)
김성국(04서양)	John and Cook	10. 16 ~ 11. 07	라:플랫
김승희(65응미)	너와 나의 풍경 2020	11. 12 ~ 11. 29	두기헌
김주환(93조소)	혼방(混紡)된 상상력의 한 형태	10. 16 ~ 11. 29	김종영미술관 신관 사미루
김현철(79동양)	금릉 김현철 개인전	11. 10 ~ 12. 10	갤러리 희 (054-859-3303)
류인선(85동양)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10. 26 ~ 11. 01	아트스페이스 H
박관택(02서양)	어제모레	10.13 ~ 21.01.17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백승현(96동양)	7기 입주예술가 프로젝트 결과보고전시	11. 17 ~ 11. 29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송인옥(82회화)	지극히 사소하고 하찮은 감정들의 기록	11. 24 ~ 12. 06	세종갤러리(02-3705-9021)
양혜규(90조소)	The Cone of Concern	10.15 ~ 21.02.28	필리핀 마닐라 현대미술디자인박물관(MCAD)
	Strange Attractors	10.24 ~ 21.05.03	영국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테이트미술관 본관)
유장우(04서양)	구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없는	10. 23 ~ 11. 08	탈영역우정국
윤기연(92동양)	필연적으로	10. 27 ~ 11. 02	갤러리 담
이민수(89조소)	순간에서 영원으로 MOMENT TO ETERNITY	10.10 ~ 21.10.09	피움미술관
이민주(76회화)	낭만적 공명	10. 22 ~ 11. 04	아트스페이스 쉼리아
이민하(98동양)	선홍빛장벽	10. 16 ~ 10. 30	갤러리 스페이스앤
이태정(01서양)	웬만하면 버리고 가	10. 27 ~ 11. 08	사이아트 도큐먼트, 사이아트 스페이스
임채욱(95동양)	지리산 가는 길	10. 18 ~ 11. 07	지리산 실상사
장우진(97서양)	철빛에 물들다	10. 25 ~ 11. 15	523콘스트독 갤러리
정성윤(00동양)	변주된 자연	11. 11 ~ 11. 28	갤러리이마주(02-557-1950)
정재원(09동양)	회광반조(回光返照) - 기로에서 꽃핀	11. 13 ~ 11. 27	디스위켄드룸
정직성(95서양)	특별한, 특별한 사물 Special, Specific Objects	10. 29 ~ 11. 21	이유진갤러리
정해나(03동양)	범 없는 굴에 토끼가 스승이라	11. 11 ~ 11. 29	일루와유 달보루
정희석(92동양)	가을 하늘이 파란색 말을 건넌다	11. 08 ~ 11. 29	갤러리 아트세빈
정희우(93동양)	길 위에서 Above the Road	11. 11 ~ 11. 30	서울일삼
조덕현(76회화)	to thee 그대에게	11.03 ~ 21.01.17	대구미술관 2,3전시실/ 선큰가든
조창환(86조소)	제한적자유_인연	12. 02 ~ 12. 08	토포하우스(02-734-7555)
채지민(03서양)	Select Scene 장면선택	10. 23 ~ 12. 12	웁스큐라
채혜선 (82응미)	beyond the window	11. 11 ~ 11. 17	갤러리 이즈 제1전시장
최은혜(02동양)	너와 나의 낮, 누군가의 밤	11. 11 ~ 11. 24	스페이스 55
함양아(87서양)	2020 타이틀매치 함양아vs서동진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10.20 ~ 21.02.14	북서울미술관
홍성용(97동양)	홍성용 옷칠화전	10. 06 ~ 10. 16	갤러리 피랑

1 본회소식

회장인사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올해로 설립 75주년을 맞으며, 배출한 동문도 연인원 6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미술대학은 한국 미술교육의 효시이자, 해방 이후 세계와 우리나라의 지도적 미술가들을 배출해 왔고,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규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업적과 성취가 앞서 나아가신 선배님들과 동문 여러분들의 연구와 창작의 열정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대 동창회는 국내외로 흩어진 6500여 동문들을 찾아내어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동문들의 작품 아카이브 제작 사업을 기획 지원하고 있으며, 구축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동문전을 기획하고, 지난해는 동문들의 미술나눔 옥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 예비동문인 재학생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탈북민 자녀가 다니는 여명학교를 지원하는 사회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희는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S-Art Platform)을 창설했습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젊고 감수성이 예민하던 청년기에 생각의 잔뼈를 굳게 해준 모교는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며, 우리 모두가 그 터에서 성장한 동문이라는 사실 또한 바꿀 수 없는 인연입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저마다 고유한 교육이념이 있고, 면면히 내려오는 학풍이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동문들의 작품에는 서울대 미대의 아카데미즘 전통이 배어 있고, 자존심과 긍지가 보입니다.

The Show Must Go On!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예술계 전체를 얼어붙게 하고 있지만,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현재 우리 미대 동창회는 그동안 구축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여, 언택트 전시인 '아트온더라인(ART ON THE LINE)'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량으로 개발한 전시 사이트에 400여명의 동문들이 12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근이 쉬워 동문들과 미술애호가들의 관람 또한 뜨겁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파악된 3500여 동문에게 매월 뉴스레터(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가 전송되고 있고, 페이스북, 밴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미디어, 그리고 동창회 단체카톡방, 이메일 등으로 동문들의 전시 및 출판 소식과 애경사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www.snuarta.or.kr)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이 웹사이트에 6500 동문의 버추얼 아카이브가 되어서 대외, 대내적으로 열린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초로 동문들이 대거 참여한 <서울대미술인> 발간은 코비드19로 인한 언택트 격리의 시대에, 지상에서 컨택트 통합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1000명에 달하는 동문이 참여하는 대역사를 가능케 한 미대 동창회 임원과 헌신적인 후배 일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회장 권영길

ART ON THE LINE

2020.10.20 - 11.2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온라인 동문전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Alumni Association

온라인동문전 ART ON THE LINE 순항중

본회(회장 권영길)는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모교 미대 온라인 동문전 'ART ON THE LINE'을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에서 개최되는 이번 동문전에는 40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작가별로 3점씩, 1200여점의 작품 및 악력이 소개되고 있다. 오픈 전에 이미 조회 수가 폭주했고 오픈 날에는 800명이 접속했으며 현재도 서울대미대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활동에 관심 있는 동문들과 일반 애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온라인 전시가 순항 중이다.

총동창회캘린더 수록작품 선정



본회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이희범)로 부터 요청 받은 2021년도 총동창회캘린더에 수록될 작품 선정을 위해 본회 권영길 회장을 비롯해 모교학장, 서울대미술관장, 갤러리스트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10월초 본회 선릉오피스에서 열린 선정위원회에서는 양혜규, 이호욱, 지원진, 최영빈, 이만나, 윤슬, 김성국, 유종구, 오귀원, 김수정, 정직성, 신미경, 조인호(월별과 표지 작가 순) 동문의 작품이 선정됐다. 수록되는 작품은 표지를 포함해 총 13점이며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미지 사용료가 지급 된다. 이번에 제작되는 캘린더는 탁상용으로 서울대동문들에게 11월 말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총동창회는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58세 미만 동문들에게는 탁상용캘린더를, 58세 이상동문들에게는 수첩을 증정하고 있다.

모교소식

수원시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 발전 도모



모교(학장 문주)가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 교육을 진행하며 수원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힘을 모았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자치대학은 10월 중 '서울대 미대와 함께하는 창의예술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먼저 청소년 대상 실습 교육인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인체해부학 극장'은 지난 10월 22일과 29일 화상강의로 진행됐다. 제이에이치조형 대표 최중희(99조소) 동문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파리와 인간을 비교하며 뼈와 근육, 신경 등 우리 몸의 역사와 구조를 진화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그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9일, 26일, 11월 2일 3주간에 걸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내 몸 사용설명서-관절, 근육'은 총 3단계에 걸쳐 뼈의 모양과 관절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21일에는 '이제 창조하라'라는 제목의 일일 특강이 마련돼 모교 교수 권대훈(90조소) 동문이 누구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모교는 수원시정연구원과 지난 6월30일 공동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협약에는 ▲일반인 및 학생 대상 문화예술 평생교육 추진 및 플랫폼 개발 ▲예술기반 창업 및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 ▲수원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전시행사 추진 ▲문화예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수원시에 적합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플랫폼과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후에도 공동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화교육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모교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주최로 열여덟 번째 국제디자인컨퍼런스 IDCC(International Design Culture Conference)가 'Good work'이라는 주제로 11월 13일과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Good Work'는 성장에 매혹되었던 지난 세기에 '과연 지난 세기에 '과연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며 경고의 질문을 했던 프리츠 슈마허의 동명의 강연록이기도 하다. 이 질문은 반세기를 지나 지구적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들려온다. 이번 IDCC에서는 비즈니스와 교육의 현장에서 디자이너와 기업가로서, 시민, 작가, 연구자로서 그 질문에 대한 창조적이고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연사들이 강연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웹사이트(<https://idcc.snu.ac.kr>)와 인스타그램(@idcc.2020)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컨퍼런스 IDCC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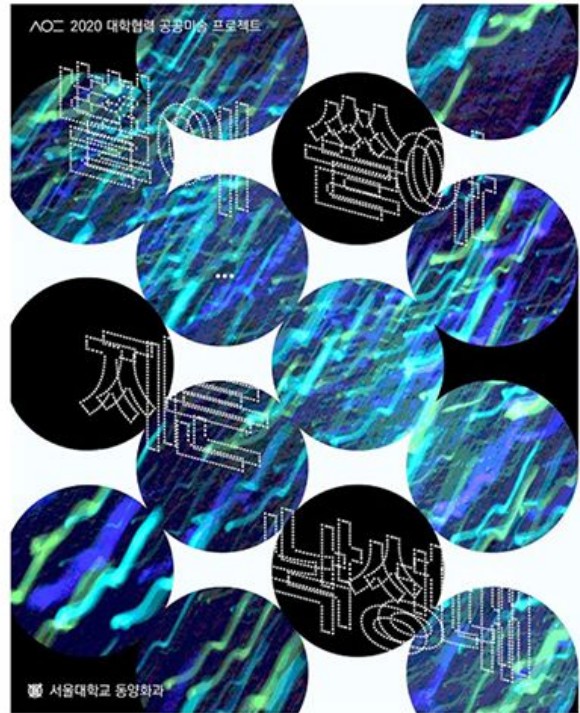


모교 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주최로 열여덟 번째 국제디자인컨퍼런스 IDCC(International Design Culture Conference)가 'Good work'이라는 주제로 11월 13일과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Good Work'는 성장에 매혹되었던 지난 세기에 '과연 지난 세기에 '과연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며 경고의 질문을 했던 프리츠 슈마허의 동명의 강연록이기도 하다. 이 질문은 반세기를 지나 지구적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들려온다. 이번 IDCC에서는 비즈니스와 교육의 현장에서 디자이너와 기업가로서, 시민, 작가, 연구자로서 그 질문에 대한 창조적이고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연사들이 강연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웹사이트(<https://idcc.snu.ac.kr>)와 인스타그램(@idcc.2020)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생회, 가상전시 Pathfinder 개최



모교 학생회(회장 하규원)가 오는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게임엔진을 활용한 가상전시 Pathfinder를 개최한다. 8명의 기획팀과 26명의 모교 학부생들이 참여하며 스타트업 Ersatz의 기술구현으로 미술대학 가상공간을 구축해 전시를 진행한다. 학생들의 작품이 가상화되어 공간에 전시되며 관객은 가상공간을 돌아다니며 관람할 수 있다. 언택트 시대의 전시 포맷을 고민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Pathfinder는 지난 11월 16일 오후 4시 30분 모교 건물 앞에서 약식 오픈을 했다.



별이 쏟아지는 낙성대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248길 인현시장
2020.09.24 ~ 09.28

**Starry
starry
Nakseong
-dae**

35, Namsunhwan-ro
248-gil, Gwanak-gu,
Seoul

Sep.24th ~ Sep.28th

김지민 박소은
김지수 영수연
김희원 유재식

I-SEOUL-U

별이 쏟아지는 낙성대

모교 동양학과 대학원생 6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별이 쏟아지는 낙성대'가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낙성대 인현시장에서 오프라인 전시를 마치고 10월 22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웹사이트(<https://seoulup.com>)에서 온라인 전시를 진행 중이다. '별이 쏟아지는 낙성대'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미술관으로 만드는 '2020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낙성대'라는 지역명의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낙성(落星)=떨어지는 별빛과 소원의 이미지를 인현 전통시장 공간으로 확대한 프로젝트이다. 모교 후문 쪽에 위치한 '낙성대'는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으로,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에 얽힌 설화가 전해진다. 모교 팀은 '별이 떨어진 곳', '위기를 이겨낸 큰 인물이 탄생한 곳'이라는 의미의 설화를 재해석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참여작가들이 별과 밤하늘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제작한 '별이 쏟아지는 파라솔' ▲인현시장 상인들의 소원을 이미지화하여 비단에 담은 '인현시장의 소원을 담은 은하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한편 서울시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서울시 공공미술 철학과 교육현장을 연결하여 지역사회 주체인 지역/대학/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 작품 활동으로, 올해 6개 대학의 6개 팀이 선정되어 참여했다.

담당교수 : 신하순(83동양)

참여작가 : 양수연(07동양), 김희원(14동양), 김지수(06동양), 김지민(14동양), 박소은(14동양), 유재식(13동양)

서울대학교미술관

[Re] Collect 여성작가 소장품전



▶참여작가 : 김성희 김정자 나희균
박근자 심숙자 유부강
이신자 장상의 정정희
홍정희 등 52명

▶전시기간 : 2020. 10. 28 ~ 11. 29

▶전시장소 : 전시실1-4(02-880-9504)

▶관람시간 : 오전10시~오후6시
(월요일 휴관)

서울대소식

개학125주년·개교74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오세정 서울대 총장, 수상자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부인 민계완 씨, 이희범 총동창회장,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대표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성기학(66무역) 영원무역 회장과 김기남(77전자공학)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정했다.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 320호에서 열린 개학 125주년·통합 개교 74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했다. 성기학 동문은 의류 제조수입 기업인 영원무역을 설립하고 아웃도어스포츠 제품에 주력해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지에 현지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서울대학교에 공준공필 우수경제관 건립기금 130억원을 비롯해 장학금과 학술연구기금으로 거액을 쾌척했다. 국내외에 자사 의류와 물품을 기부하며 사회봉사를 펼쳤다. 김기남 동문은 UCLA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198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30년 이상 반도체 사업부에서 한우물을 판다. 많은 메모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반도체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과 설계 분야에서 유수의 기술을 확보했다. 서울대학교와는 삼성전자 서울대 공동연구소 설립과 인공지능반도체공학 융합전공 지원 등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했다. 성기학 동문은 “50년 전에 졸업했지만 학생들이 좀더 폭넓은 교육을 받고 교류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노력해왔다”며

“서울대의 발전과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으니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달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서울대학교는 1991년부터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들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서울대 THE 세계대학평가 60위

서울대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THE(The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평가에서 작년보다 4단계 오른 60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2일 THE가 발표한 2021 세계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는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총점 69.7점을 받았다. 항목별 점수는 교육여건 72.4점, 연구실적 73.8점, 논문 피인용도 68.8점, 산학협력수익 97.8점, 국제화 37.4점이다. 교육여건 점수는 세계 30위, 산학협력수익의 점수는 세계 39위급으로 국제화 점수는 2016년 30.9점에서 한 번도 하락 없이 꾸준히 상승해왔다. 국내 대학 2위는 세계 96위의 카이스트, 3위는 세계 101위의 성균관대였다. 전체 순위를 보면 여전히 옥스퍼드대가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캘리포니아공과대, MIT가 뒤를 이었고 100위권 안에 중화권 대학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총 30억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 16일 총 3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긴급학업장려금과 긴급구호장학금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에 납부한 학부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 6차례 협의 끝에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방법을 결정했다. 총 20억원 규모의 긴급학업장려금은 지난 1학기에 등록한 학부 재학생들이 수혜 대상이다. 음대와 미대 학생은 지급비율을 달리 적용해 최대 10%p 더 많은 액수가 예상된다. 긴급구호장학금은 총 10억원 규모로 학부생과 대학원생 중 코로나19 사태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이다. 학부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에게 일괄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원생에게는 추후 신청을 받아 선별 지급한다.

서울대총동창회소식

11월 수요특강

SNUA사수회 : 네번째 수요일 개최

- 일시 : 11월 25일(수) 오전 7시 30분
- 장소 : SNU장학빌딩2층 베리타스홀 (마포구 도화동, 5호선 공덕역 8번출구)
- 강사 : 박승준(74인문대)
, '한국과 중국 100년' 저자,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
- 참가비 : 무료(김밥 등 간단한 식사 및 강사 저서 제공)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경우, 선착순 40명으로 제한
- * 참석 못한 동문들을 위해 추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예정
(www.youtube.com에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검색)

※ 자세한 행사 안내 및 신청방법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총동창회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참가신청 가능. 문의 : 02-702-2233, 02-879-820

12월 조찬포럼

- 일시 : 12월 10일(목) 오전 7시 30분
- 장소 : 웨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호텔 그랜드 볼룸 (고속터미널 뒤)
- 강연자 : 최정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강의주제 : 내년도 경제 전망
- 참가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증정)
- 참가신청방법 : [이름, 단체(과정명), 연락처기재]후 참가비 입금
- 전화 02-702-2233, 02-879-8204(담당자)
-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 팩스 02-703-0755
- 이메일 member@snu.or.kr
- * 참가비 : 5만원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서울대총동창회
-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바람

재능기부

온라인동문전 웹사이트 제작

김종삼(96서양)



본회가 개최 중인 온라인동문전 '아트온더라인' 웹사이트를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한 김종삼 동문. "동창회 일은, 저도 일원이니까 제 일에도 가깝다 생각해요. 다른 기관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여기서는 나도 여기 일원이니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라며 동창회를 위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온라인전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이전에 공부했던 홈페이지 언어가 지금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달라 제작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다"면서도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화려하게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문은 모교 입학 이전 경희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다. 원래부터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미술실기 경력이 없어 미대 대신 비슷한 계통인 건축과로 진학했다. 건축과에서 설계, 조감도를 공부하던 중 286컴퓨터가 출시되며 설계가 자동화될 것이란 예측에 진로를 새롭게 정하게 됐다. 이에 3학년 때 건축과를 중퇴한 뒤 한성대 서양화과, 홍대 판화과를 거쳐 8수 끝에 모교 서양화과에 진학했다. 졸업 이후 김동문은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병행하고 있다. 김동문은 하루평균 400여명이 방문하는 '아트뉴스'의 창립자이자 편집자 겸 기자이다. '그림제작소'와 작품·건축출장촬영전문 스튜디오 '시간과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본인의 작품소개를 위해 시작한 '아트뉴스'를 하다 보니 독학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됐고, 언론사등록을 하고, 기자회견에도 가입하게 됐다고 한다.

축하기 · 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신청/ 02-872-8065).

입금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감사·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납부자(2020.10.1-31)-가나다순

■ 평생회비 ●장수홍(69응미)

■ 연회비

부회장(₩300,000) ●임영선(79조소)

이사(₩100,000) ●권동현(90조소)

회원(₩ 30,000) ●이삼철(58회화) ●최석화(58조소)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매달 25일 이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 전화 02-872-8065 메일 snuarta@naver.com

동문사업체 소개

본회는 홈페이지(제작중)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의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SNS 가입안내

▶네이버 밴드(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https://band.us/band/76254576>

▶인스타그램(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www.instagram.com/snuartassociation

▶페이스북(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www.facebook.com/groups/500249366673119/

▶네이버 카페(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cafe.naver.com/snuartassociation

LIFEHACKERS



턱관절 냉온 찜질기

어떤 얼굴형에도 맞춤 가능한 특수제작 스트랩!
턱관절 통증 완화 및 붓기 제거!
간단하고 편리한 사용법!
20g의 가벼운 무게!

동문할인

~~24000원~~ -> 18000원

문의 및 주문: 010-6252-9732



https://smartstore.naver.com/lifehackers_kr

디자이너 명예의전당 헌액

김교만(50음미)



김교만(1928-1998) 동문이 지난 9월 24일 디자인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디자인계를 이끈 공로가 인정돼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제7대 헌액자로 선정됐다. 김동문은 간결하고 현대적인 표현기법과 민속적인 소재의 결합을 통해 당대 그래픽디자인 사조에 큰 영향을 준 그래픽디자이너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심벌마크, 로고를 비롯해 '88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 의료보험 심벌마크, 김포공항 국제선 제

12청사의 국내선 사인보드, 픽토그램, '92제노바EXPO 한국관 심벌마크, 경찰청 순경계급장, '94한국방문의해 공식 엠블럼, 로고 등을 디자인 했다. 김동문은 1965-94년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6년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디자이너 100인' 중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은 국내 디자인산업 발전에 공헌한 디자이너를 헌액함으로써 우리 디자인의 역사 기록과 디자이너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만들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계 협단체와 간담회 및 디자인계 제안을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명을 헌액했다.

바이블도자예술관 특별전

서동희(66음미)



서동희(건국대 명예교수) 동문이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더샵스타시티 전시관에서 '바이블도자예술관 2020 특별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골짜기의 백합화(아가서 2장 1절)'이다. 마태복음을 주제로 제작한 '산상변화' 시리즈, 요한계시록을 테마로 한 '생명의 강' 연작, '생명나무'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의기상승' '광채' 등이 선보인다. 서동

문은 성경말씀을 조각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미국 플브라이트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캔자스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빵 썰는 기법을 응용한 도자조형기법을 구축했다. 건국대 교수가 된 뒤 도예과의 공간확보에 힘썼다. 작품제작 및 판매 등을 통해 실습용 가마를 구입하는 열정을 드러냈다. 서동문은 "그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독교 작품을 만든다는 기쁨과 설렘 속에서 살았다"며 "쉽사리 돈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시가로 1000억원에 이르는 작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일명 '성경도예관'을 세울 꿈도 꾸고 있다. 전시관람은 전화예약제 (010-2271-2257)로 운영한다.

한국현대조각초대전 개최

이창림(69조소)



이창림(69조소) 동문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2020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이 강원도 춘천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현대조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은 지난 10월 10일 춘천MBC사옥 내 호

반광장에서 개막해 18일까지 39일간 개최되어 조각계를 대표하는 원로와 교수 등이 선정한 작품 69점을 선보였다. 이동문은 "이번 전시는 춘천의 아름다운 속에서 작품의 조형미와 예술미를 감상하는 기회며 명절과 함께 마음을 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체험의 장"이라고 말했다. 1987년부터 춘천MBC가 매년 가을 개최하는 올해로 34회째를 맞 한국현대조각초대전은 춘천MBC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관람도 가능하다.

이인성미술상 선정

강요배(72회화)



서양화가 강요배 동문이 제21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순명 심사위원장은 "일관되게 회화작업의 길을 걸어온 강작가는 최근 연륜이 더해지면서 밀도 있는 작품세계를 선보이고 있다"며 "시대와 역사에 충실하고 다양한 화풍의 변모를 추구하는 예술세계를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강동문은 "예상치 못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내년 진행될 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주에서 태어난 강동문은 현재 제주에 거주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과 학교재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국립현대미술관, 미국 소노마카운티뮤지엄,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 및 갤러리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한편 이인성미술상은 대구출신 서양화가 이인성(1912-1950)을 기리기 위해 대구시가 제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 개인전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시상식은 제20회 수상자 '조덕현(76회화)' 초대전과 이인성미술상 20주년기념 특별전과 함께 오는 11월 4일 대구미술관에서 열린다.

춘천조각심포지엄 작가상 수상

전항섭(79조소)



전항섭 동문이 춘천조각심포지엄 작가상을 수상했다. '치유와 회복의 기념비'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5일부터 춘천 옛 캠프에이 내 꿈자람 물정원에서 열린 '2020춘천조각심포지엄'은 2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5일 마무리됐다. 이번 폐막식에서는 참여작가 9인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올해의 작가상에 전동문이 선정돼 상패가 전달됐다. 모교 조소과와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한 전동문은

2012년 전항섭 평면조각전, 제8회 '나무 속의 방', 제9회 '나무경2018' 등의 전시회를 열었으며 수상 경력으로는 '2000 우성김종영조각상', '2009 경기예술대상', '2014 한국현대조각초대전작품상' 등이 있다. 작품상 수상자인 전동문의 작품은 춘천시 낙원동 낙원문화공원에 설치됐다.

순종척서로 만든 디지털글꼴

김민(80음미)



국민대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 교수 김민 동문이 순종 척서로 만든 디지털 글꼴 재민체를 개발했다. 재민체는 1908년 순종황제가 근대식 국립병원인 대한의원 개원일에 내린 '대한의원 개원칙서'(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 소장)에 쓰인 글씨체를 토대로 만들었다. 개발은 국민대 사회문화디자인연구소 김민 교수팀과 국립암센터 초대원장 박재갑 서울대의대 명예교수이다. 박교수는 칙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가 왜 통용이 안 될까 안타까웠다"고 했다. 서예를 배우면서 칙서의 번역본을 궁서체로 옮기는 연습을 했는데 지난해 2월 이를 본 김동문이 서체 제작을 제안했다. 시인 윤동주 천상병, 신영복 교수의 육필을 디지털 폰트로 복원한 서체전문가인 김동문은 박윤정 겸임교수, 이규선 연구원과 함께 칙서의 33자 한글 자소를 기반으로 총 2350자를 완성했다. 폰트 이름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와 아울러 두 교수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 574돌 한글날을 맞아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울대병원 의학박물관에서 특별전 '함께 쓰고, 함께 그린다-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으로'가 열린다. '대한의원개원칙서'와 지석영이 쓴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 등 박교수가 재민체로 옮겨 쓴 서예작품들이 전시된다.

경기도민상 수상

심상용(81회화)



심상용(서울대 미술관장) 동문이 도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17일 경기도민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내 전시된 작품들을 보며 작품의 질적 수준이나 홍물처럼 방치된 전시 형태, 구조적 적폐 등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심동문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으로 참여, 수준 높은 작품이 도민에게 좋은 문화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심의를 해왔다. 건축물 미술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된 것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위한 작품인 만큼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신에서다. 1년간 12번의 심의를 진행했으며, 8~9명의 위원과 1회당 평균 40~60건의 작품을 심의했다. 이로 인해 특정 작가의 출품 쏠림 현상도 완화됐다. 심동문은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가가 되려 모교에 진학했던 심동문은 현대 미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졸업후 파리 유학을 감행해 파리 8대학에서 석사, 1대학(현대미술사)과 8대학(조형예술)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동덕여대 교수를 거쳐 지난해부터 모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강원키즈트리엔날레 개막

한샘마(89서양)



한샘마 동문이 예술감독을 맡은 국내 최초 어린이 시각예술축제인 ‘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0’이 지난 10월 22일 개막했다. 한동문은 “전쟁에 쓰이는 총알을 만들던 탄약정비공장에서 예술가들이 미래 꿈나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아트 탄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축제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예술놀이터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일회성 축제에서 벗어나 어린이는 물론 연인, 친구, 가족들이 즐겁게 찾을 예술명소를 지역의 자산으로 남긴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옛 군부대 탄약정비공장과 와동분교, 흥천미술관 일대에서 무료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그린 커넥션’이다. 자연과 환경, 동심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경계를 넘는 평화를 의미하는 ‘연결(Connection)’의 합성어다. 총 11개국 110명의 작가(어린이 작가 포함)가 참여하고, 350여 작품이 전시되며 온오프라인으로 11월 8일까지 열렸다.

초대륙적 기획자 대담

양혜규(90조소)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양혜규 동문의 개인전 기획자 4인의 온라인 대담 ‘불확실성의 원뿔 속 초대륙적 대담’이 열렸다. 이번 대담은 지난 10월 8일 MCAD 온라인플랫폼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국립현대미술관 페이스북에서도 공유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코로나19로 전시가 연기되면서 4개국 전시가 동시다발로 열리게 된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세계적인 작가 양혜규의 개인전을 준비해 온 4개국 미술관 기획자들이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연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담에서는 팬데믹이 각 지역의 예술 및 문화 기관에 미친 영향과 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지희 학예연구사가, 캐나다 온타리오 미술관에서는 아델리나 블라스 큐레이터, 영국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에서는 앤 바로우 큐레이터가 패널로 참여했다. 진행은 조셀리나 크루즈 MCAD 큐레이터가 맡았다.

세계적인 교육앱 개발

이수인(95조소)



엔씨소프트 출신 이수인 동문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 이진호 최고기술책임자와 2012년 미국 버클리에서 공동 창업한 기업 에누마는 3~9세 아동이 부모나 교사의 도움 없이도 기본 문해(文解)와 수학, 영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 부부는 게임업체 근무경험을 살려 아이가 놀이하듯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디자인에 주력했다. 그렇게 탄생한 앱이 2013년 출시한 ‘토도수학’이다. 토도수학은 등장하자마자 세계 20개국에서 애플 앱스토어 교육 부문 1위에 올랐다. 현재 미국·호주 등 여러 국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수업교재로 토도수학을 활용한다. 에누마는 토도수학과 종합교육솔루션 ‘킷킷스쿨’에 이어 올해 ‘토도영어’와 ‘도토리글방(한국어)’ 등의 콘텐츠를 잇달아 출시했다. 국내외 여러 투자기관이 에누마에 약 220억원(누적)을 투자했다. 지난해 킷킷스쿨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1500만달러(약177억원)를 후원한 아동교육경진대회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대상(공동 우승)을 받았다.

코로나시대, 브랜드가 생존 가르다

최소현(95산대)



수많은 브랜드 경험을 설계해 온 최소현(퍼셉션 대표) 동문은 지난 10월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직면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 회사 창립 이후 만 18년 동안 브랜드 경험 설계 퍼셉션을 이끌어 온 최동문은 눈에 보이는 겉데기보다 브랜드철학을 담은 가치를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자신이 할리스라는 브랜드를 다시 만들면서 구상했던 이미지와 SNS상에 올라오는 할리스의 모습을 비교하곤 한다. 둘 사이에 차이가 없이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최동문은 “할리스는 로컬 브랜드로서 고객을 중심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고객들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느낄 것”이라며 “앞으로 디자인이 갖는 힘이 더 커지고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해온 대로 퍼셉션을 잘 키워내 ‘문제해결을 잘 해낸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와 이론가 타이틀매치

함양아(87서양)



함양아 동문이 서동진 평론가와 ‘오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결을 펼친다. 경쟁과 대화,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대표 연례전 ‘타이틀 매치’의 일곱 번째 전시 함양아 vs 서동진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전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2021년 2월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와 이론가가 맞붙었다. 함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대학원 미술이론과를 졸업한 후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미디어 아트를 공부했다. 이후 미국, 중국, 네덜란드, 터키 등의 여러 지역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토대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화된 자연에 대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위태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흔들리는 모두에게 각자 균형을 잡아가는 경로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숙고하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서울미술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회차당 80명씩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신간

	김충원 미술수업 세트(전3권) 김충원(79음미) 저 / 전선아트북 발행 〈김충원 미술수업 세트〉는 《김충원 색연필 수업》과 《김충원 크레파스 수업》, 《김충원 수채화 수업》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전 국민의 미술 멘토가 되었던 책 〈김충원 미술교실〉 시리즈를 토대로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대상의 폭을 넓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그리기를 배우는 시리즈로 탄생하였다. 일반인은 물론 부모와 아이, 교사 모두가 즐기며 그릴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전문적인 이론까지 세세하게 소개하여 온 가족이 즐기기에 유용하다. 따라 그리고 싶은 다양한 보기 그림을 가득 실어 그림 그리기를 즐기고 싶은 이들 모두에게 적극 추천한다.
	인생에 예술이 필요할 때 심상용(81회화) 저 / 시공아트 발행 그림에서 찾는 인생과 죽음, 예술, 사랑, 치유 예술가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은 전작 『예술, 상처를 말한다』에 이어 인생, 죽음, 예술, 사랑, 치유 다섯 가	지 주제로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어 우리에게 위로를 전한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속 사이프러스 나무를 통해 묵묵히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를 인생에 비유하고, 클림트의 관능적인 그림에서 오히려 평생 동안 간직하고픈 사랑과 우정을 발견한다. 고야, 르누아르, 조지아 오키프 등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나설 시간이다.
	불안은 감각을 잠식한다 안상혁(81음미) 저 / 사람의무늬 발행 “상상적 관념들은 현대 엔터테인먼트를 최고의 영역으로 바꾸었다. 과거의 철학에서 상상적 관념들이 이성적 변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정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상상적 관념과 이성적 변용 사이의 갈등과 투쟁, 그것의 중심에 불안	이 있다.” 끊임없이 현재를 새롭게 갱신하도록 요구받는 시대, 그곳에서 감각의 논리는 주목된다. 현대 미학이 감각의 논리에 천착하게 된 것은 언어로 의식화되지 않는 곳에서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 속에서 감각은 인간과 세계를 가로막는 장벽들인 철학적 반성과 합리적 언어의 개념성을 허물어뜨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직접성을 환기시키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한다.
	그림을 보는 기술: 영화의 구조를 읽는 법 이연식(90서양) 옮김 / 까치 발행 그림이 보이는 해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는 그림 감상 안내서. 루벤스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생동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페르메이르의 그림은 왜 유독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까?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왜	대표적인 명화로 꼽힐까? 그 이유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일본 야마존 장기 베스트셀러인 이 책에서 저자는 구도, 선, 경로, 색감, 균형 등을 토대로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는 기술을 설명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서부터 빈센트 반 고흐, 에드워드 호퍼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명화들을 예시로 살펴 보면서 그림을 읽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다.

전시(단체전)

	이원전 40주년기념전 동양화와 동문들의 단체전 ▶출품작가: 故김경선 김화현 민재영 박민희 송윤주 심현희 유한이 이윤정 이윤진 이진희 전수연 정희우 조은령 조해리 최혜인 ▶기간: 2020. 10. 28 ~ 11. 03 ▶장소: 갤러리 도스 본관(02-737-4678)	 공간과 사물 도예과 동문들의 단체전 ▶기간: 2020. 10. 09 ~ 10. 22 ▶장소: 두오모앤코2층 불탑쇼룸 (02-516-3022)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7시 (토요일 6시까지/일요일 휴관)
	한국화회 동양화와 동문들의 단체전 ▶기간: 2020. 11. 08 ~ 11. 14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	 오래된 時 . 視 . 詩 ▶출품작가: 김인경 박경희 배창숙 송지연 신현경 이순영 이옥수 임수진 전효순 조은영 ▶기간: 2020. 11. 24 ~ 11. 30 ▶장소: 산울림 아트앤크래프트(02-334-5915) ▶관람시간: 오후1시~오후7시(월요일 휴무)

전시(개인전)

 예술가의 《꿈》 김종영(조소과교수/작고) ▶기간: 2020.10.16~21.4.16 ▶장소: 김종영미술관 본관 (02-3217-6484)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The Path 김창열(48회화) ▶기간: 2020.10.23~11.29 ▶장소: 갤러리현대 (02-2287-3500)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작고작가 정치환 정치환(60회화/작고) ▶기간: 2020.10.20~10.25 ▶장소: 수성아트피아 (053-668-1800)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
 영원한 율동의 근원 박중대(62조소/작고) ▶기간: 20.10.20~21.02.14 ▶장소: 군산근대미술관 (063-454-5953) ▶관람시간: 오전9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나희균, 고요의 빛 나희균(50회화) ▶기간: 2020.11.14~12.31 ▶장소: 환기미술관 본관 (02-391-7701)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LANDSCAPE 서도식(74응미) ▶기간: 2020.11.11~11.30 ▶장소: 디자인갤러리 모이소 (02-2262-7195)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월요일 휴관)

성명(가나다순)	전시명(개인전)	전시기간	전시장소
홍선애(62회화)	Sunny Kim - Starry Night	10. 06 ~ 10. 31	TAG Gallery(LA)
강요배(75회화)	풍경의 깊이	10. 27 ~ 11. 30	학교재 가상전시공간 OROOM(오름)
권순철(64회화)	권순철 展	11. 20 ~ 12. 20	가나아트센터
김상경(87서양)	Landscape in Jeju 2020	11. 25 ~ 12. 01	갤러리 고도(02-720-2223)
김성국(04서양)	John and Cook	10. 16 ~ 11. 07	라플랫
김승희(65응미)	너와 나의 풍경 2020	11. 12 ~ 11. 29	두가헌
김주환(93조소)	혼방(混紡)된 상상력의 한 형태	10. 16 ~ 11. 29	김종영미술관 신관 사미루
김현철(79동양)	금릉 김현철 개인전	11. 10 ~ 12. 10	갤러리 희 (054-859-3303)
류인선(85동양)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10. 26 ~ 11. 01	아트스페이스 H
박관택(02서양)	어제모레	10.13 ~ 21.01.17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백승현(96동양)	7기 입주예술가 프로젝트 결과보고전시	11. 17 ~ 11. 29	대전테마예술창작센터
송인옥(82회화)	지극히 사소하고 하찮은 감정들의 기록	11. 24 ~ 12. 06	세종갤러리(02-3705-9021)
양혜규(90조소)	The Cone of Concern	10.15 ~ 21.02.28	필리핀 마닐라 현대미술디자인박물관(MCAD)
	Strange Attractors	10.24 ~ 21.05.03	영국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테이트미술관 본관)
유장우(04서양)	구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없는	10. 23 ~ 11. 08	탈영역우정국
윤기연(92동양)	필연적으로	10. 27 ~ 11. 02	갤러리 담
이민수(89조소)	순간에서 영원으로 MOMENT TO ETERNITY	10.10 ~ 21.10.09	피움미술관
이민주(76회화)	낭만적 공명	10. 22 ~ 11. 04	아트스페이스 쉼리아
이민하(98동양)	선홍빛장벽	10. 16 ~ 10. 30	갤러리 스페이스앤
이태정(01서양)	웬만하면 버리고 가	10. 27 ~ 11. 08	사이아트 도큐먼트, 사이아트 스페이스
임채욱(95동양)	지리산 가는 길	10. 18 ~ 11. 07	지리산 실상사
장우진(97서양)	철빛에 물들다	10. 25 ~ 11. 15	523콘스트독 갤러리
정성윤(00동양)	변주된 자연	11. 11 ~ 11. 28	갤러리이마주(02-557-1950)
정재원(09동양)	회광반조(回光返照) - 기로에서 꽃핀	11. 13 ~ 11. 27	디스위캔드룸
정직성(95서양)	특별한, 특별한 사물 Special, Specific Objects	10. 29 ~ 11. 21	이유진갤러리
정해나(03동양)	범 없는 굴에 토끼가 스승이라	11. 11 ~ 11. 29	일루와유 달보루
정희석(92동양)	가을 하늘이 파란색 말을 건넨다	11. 08 ~ 11. 29	갤러리 아트세빈
정희우(93동양)	길 위에서 Above the Road	11. 11 ~ 11. 30	서울일삼
조덕현(76회화)	to thee 그대에게	11.03 ~ 21.01.17	대구미술관 2,3전시실/ 선큰가든
조창환(86조소)	제한적자유_인연	12. 02 ~ 12. 08	토포하우스(02-734-7555)
채지민(03서양)	Select Scene 장면선택	10. 23 ~ 12. 12	옵스큐라
채혜선 (82응미)	beyond the window	11. 11 ~ 11. 17	갤러리 이즈 제1전시장
최은혜(02동양)	너와 나의 낮, 누군가의 밤	11. 11 ~ 11. 24	스페이스 55
함양아(87서양)	2020 타이틀매치 함양아vs서동진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10.20 ~ 21.02.14	북서울미술관
홍성용(97동양)	홍성용 옷칠화전	10. 06 ~ 10. 16	갤러리 피랑